

# 게르만 설화에 나타나는 황금의 양가적 의미\*

-독일 민담 <홀레할머니>와 게르만 신화 『에다』,  
독일 중세 전설 『니벨룽의 노래』를 중심으로-

이 혜 정\*\*

- I. 들어가는 말
- II. 게르만 설화와 황금
- III. 맺음말

## • 국문초록

언제부터인가 황금은 재물을 대표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설화문학에 있어서도 황금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부정적인 모티프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황금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강조된 설화 장르는 주로 신화와 전설이며, 대다수 민담에서는 황금이 매우 긍정적이며 특징적인 의미로 활용되어 있다.

특히 여주인공과 관련해서 민담의 황금은 주로 진짜신부나 여주인공의 성숙을 상징하는 증표로 나타난다. 피뎀은 얼레를 꺼내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간 <홀레할머니(Frau Holle)>의 소녀가 할머니의 집안 일을 잘 돌본 댓가로 온몸에 황금비를 맞고 돌아온 것은 이제 그녀가 땅속의 황금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20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간강사.

같은 성숙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설화적 맥락에서 볼 때, 대지와 여성과 황금은 하나의 카테고리이다. 대지와 여성은 생산을 대표하는 주체이며, 황금은 대지 속에서 잉태된 가장 성숙한 금속이다. 반면에 신화와 전설에서의 황금은 미다스왕의 황금과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양상을 띤다. 특히 신들과 세계의 종말을 담고있는 게르만 신화 『에다(Die Edda)』와 영웅들의 허무한 죽음을 노래한 독일 중세 서사시 『니벨룽의 노래(Das Nibelungenlied)』의 황금은 ‘자신의 반지를 소유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는 안드바리(Andvari)의 저주와 함께 황금에 대한 경계가 이야기 전체를 관주하고 있다. 비록 이 두 설화에서 황금이 세계의 종말과 영웅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혐오와 탐욕을 상징하는 금속으로서 황금의 부정적인 의미와 모티브 활용이 인상적으로 수용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게르만 민담과 신화 및 전설에서의 황금은 동일한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양상이 각기 다르며 양가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그것은 대다수 민담(마법담)이 대지와 달의 생산성에 주목했던 태음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신화와 전설은 주로 태양세계관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세대에 존중되었던 요소들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폄훼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곤 한다.

따라서 게르만 설화에서 볼 수 있는 황금에 관한 특징적인 강조와 양가적인 의미 부여는 게르만 설화의 성격과 세계관의 변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특징적인 지표가 되는 모티프라 하겠다.

## • 주제어

황금, 대지, 여성, 마법, 홀레할머니, 에다, 니벨룽의 노래, 태음세계관, 태양세계관

## I. 들어가는 말

설화의 대표적인 장르인 신화와 전설 및 민담은 구전(口傳)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비슷한 내용이나 모티프들이 서로 혼재되고 유사한 측면들이 많으나, 발생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기 그 본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sup>1)</sup> 단적으로 말해서 신화와 전설은 주로 신들과 인간의 차이 및 이로부터 유발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반해, 민담은 금기를 뛰어넘는 인간의 용기와 성숙을 보여준다. 그것은 각 설화 장르들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모티프라 하더라도 활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sup>2)</sup>

- 1) 설화문학의 3대 장르인 신화와 전설, 민담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신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세계와 신, 국가, 동물, 식물 등등의 기원과 사후세계와 연관된 설화라 할 수 있다. 전설은 특정한 장소와 인물, 사건, 자연현상 등에 대한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이한 요소들의 결합과 함께 신빙성이 요구되며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는 역사전설과 지역전설로 나눌 수 있다. 민담은 민간에 널리 알려진 신비하고 환상적인 짧은 이야기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으나, 마법담, 소담, 슈방크민담, 노벨레민담, 동물담, 수수께끼민담, 경고민담, 형식담 등등, 여러 하위 장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적이며 예술적이다. 그러나 민담학자인 막스 뤼티는 신화와 전설, 민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이한 모티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티프 활용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막스 뤼티(Max Lüthi) 저, 김흥기 역, 『유럽의 민담』, 보림출판사, 2005, 13~15쪽 참조.
  - 2) 민담(民譚)은 민속문학의 한 형태인 구전(口傳)민담과 특정 작가에 의해 창작된 창작(創作)민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전민담은 다시 본격적인 민담이라 할 수 있는 마법담(魔法譚)과 주인공의 재치와 웃음을 다룬 소담(笑譚) 또는 소화(笑話)로 이분할 수 있다. 마법담과 소담의 중간 형태 [독일 학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민담을 슈방크메르헨(Schwank-소담, märchen-민담)으로 분류한다]에 속하는 민담도 마법담으로 볼 수 있으나, 마법적 소재가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마법담이 아니다. 민담의 발생에 관한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정통 민담인 마법담의 발생시기를 선사시대로 보는 견해들이 유력하며, 프랑스의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과 같은 학자들은 <빨간모자>, <엄지소년>(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과 유사), <장화신은 고양이> 등의 민담들을 근대시기에 발생된 이야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로버트 단턴 저, 조한옥 역,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2002, 32~35쪽 참조.
-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민담으로서, 민담의 특성들이 가장 잘 수용되어

설화에 수용된 황금도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의 본래적인 성격과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티프이다. 일반적으로 황금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황금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욕망의 물질로 수용되어 있는 것은 주로 신화나 전설이지, 민담의 국면은 아니다. 많은 민담들에서 황금은 주인공의 성숙과 연관이 깊으며 나아가 적용된 황금의 양은 주인공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곤 한다.

여주인공들과 관련해서 황금 모티프가 보다 특징적으로 수용된 게르만 민담 중 하나가 독일 민담 <홀레할머니><sup>3)</sup>이다. 추운 겨울 손가락에서 나온 피가 묻은 얼레를 닦다가 우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간 여주인공은 지하세계에서 홀레할머니를 만난다. 처음에 소녀는 커다란 이빨이 난 홀레할머니가 무서워 달아나려 했으나, 홀레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가사일을 돌보며 그곳에서 지낸다. 그리고 얼마 후 소녀는 일을 잘한 댓가로 온몸에 황금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스스로 우물 속으로 들어간 계모의 게으른 딸은 온몸에 시꺼먼 역청을 뒤집어쓰고 돌아온다. 온몸에 황금을 뒤집어 쓴 소녀와 역청을 뒤집어 쓴 소녀의 대조적인 상황은 때론 권선징악의 상벌(賞罰) 개념으로 파악해서 주인공 소녀의 황금을 재물(財物)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민담은 권선징악과 상관이 없다.<sup>4)</sup>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거짓말이

---

있는 정통 마법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칭하여 ‘민담’이라 칭하였다.

3) 그림형제(Brüder Grimm), 『아동과 가정의 민담(Kinder und Hausmärchen)』(이후 KHM으로 약칭), 24번 : <Frau Holle>의 번역은 ‘Frau’의 일차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홀레 부인>, <홀레 아주머니>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야기에 묘사된 홀레 여신의 모습이나 여타 민담에 수용된 노파 또는 마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홀레할머니>로 번역했다. 국내의 KHM 완역본 중 가장 근래에 출간된 김경연의 『그림형제 민담집』(현암사, 2013)에도 <홀레할머니>로 표기되어 있다.

4) 아동문학의 측면에서 권선징악적인 주제가 폭넓게 수용된 민담은 창작민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전민담 중에서도 권선징악적인 요소를 다수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필사자의 견해가 개입되었거나 아동의 시각에 알맞게 내용

나 도둑질 심지어 살인조차도 타당하다. 주인공의 성장에게 필요한 것이 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며 실수나 잘못 또한 더 큰 성공이나 성숙을 위한 사전 포석에 해당한다. 주인공에 대한 박해와 빈곤 또는 어머니 부재 등의 결핍 상황도 주인공의 성숙을 위한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sup>

이에 반해 세계의 종말을 담고 있는 게르만 신화 『에다』는 ‘자신의 반지<sup>6)</sup>를 소유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는 안드바리의 저주가 실현된 듯, 신들의 세계와 함께 온세상이 화염에 휩싸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딘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황금 신기(神器)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볼 때, 게르만 신화, 『에다』에서 황금은 마법의 힘을 지닌 양가적인 정신적 물질로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금이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재물로 그 인식이 구체화된 것은 전설적 국면으로, 신화에서와는 다르게 황금반지와도 그 기능이 분리된다. 중세 독일 전설 『니벨룽의 노래』<sup>7)</sup>의 황금반지는 사랑과 신의의 증표로서 그 의미가 축소화된 반면에, 황금은 본격적으로 영웅의 입지를 세우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전설의 영웅은 무용(武勇)과 함께 자신의 권력을 담보할 보물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전설의 영웅이 그렇듯 그의 보물도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작용을 한다.

이나 문체 등이 윤색 또는 가필되었기 때문이다. 이해정, 『그림형제 독일민담』, 뮤진트리, 2010, 21~22쪽 참조.

5) 막스 뤼티 저, 『유럽의 민담』, 37~38쪽 참조.

6) 안드바리의 반지는 스스로 황금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반지로, 황금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는다.

7) 독일 중세 서사시 <Das Nibelungenlied>의 한글 표기는 <니벨룽겐의 노래>, <니벨룽엔의 노래>, <니벨룽의 노래>로 각기 표기하고 있으나, Nibelung-en-licd의 -en은 중세 독일어 여성명사의 2격(소유격) 어미(중세까지 독일어 여성명사의 2, 3, 4격에도 -en을 붙였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니벨룽의 노래>라 표기하였으며, 바그너(R. Wagner)의 <Der Ring des Nibelungen>도 <니벨룽의 반지>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Astrid Stdje, Deutsche Sprache gestern und heute, W. Fink, 1989 참조.

그 밖의 중요 한글 표기는 허창운의 『니벨룽겐의 노래』와 임한순의 『에다』를 따랐다.(단, 『에다』의 제 2신족인 ‘Wan(en)’은 ‘반 신족’으로 표기하였다.)

이렇게 민담에서는 가장 진실한 물질 또는 성숙을 상징하는 금속인 황금이 신화나 전설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용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설화 장르에 수용된 세계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금이라는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상반되게 활용된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게르만 설화 중 황금에 대한 의미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독일 민담 <홀레할머니>와 게르만 신화 『에다』 그리고 독일 중세 전설 『니벨룽의 노래』를 중심으로 게르만 설화에 나타나는 황금의 양가적인 의미를 근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8)</sup>

## II. 게르만 설화와 황금

### 1. 독일 민담 <홀레할머니>

독일 민담 <홀레할머니>는 황금과 민담과의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화들 중 하나이다. 여주인공을 위주로 하는 민담들은 표면적으로 여성의 근면함을 최고의 덕으로 표방하고 있는 듯 보이나, 내적으로는 그녀들의 성숙 내지는 진짜신부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부(富)의 획득이나 외면적인 성공은 민담의 진짜 목표가 아니다.<sup>9)</sup>

8) <홀레할머니>는 그림형제의 KHM에 수록된 민담 중 한 편이지만, KHM은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민담들도 다수 포함된, 게르만 전체를 대표하는 민담집 중 하나이며, <홀레할머니>도 유럽 곳곳에 유포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Johannes Bolte und Georg Polivka, *Anmerkungen zu der Kinder-U.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Erster Band, Hildesheim, 1963. pp.207~227.

또한 <에다>는 북유럽 유일의 신화서이며, <니벨룽의 노래> 역시 <에다>와 연관이 깊은 중세 독일의 대표적인 서사시이다. 따라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에다』와 『니벨룽의 노래』로 표기하였다.

<홀레할머니>도 소녀의 근면함을 칭찬할 목적이었다면, 금으로 온몸을 뒤덮는 추상적인 상보다는 현실적인 보상이 더 걸맞을 것이다. 온몸을 금으로 도금한 것 같은 소녀의 모습은 부의 상징도 아름다움의 상징도 아니다. 우선 <홀레할머니>의 소녀가 우물 속에 빠져야했던 상황부터 이야기해보자. 소녀가 우물에 빠진 이유는 손가락에서 나온 피가 묻은 얼레를 닦다가 우물 속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물레로 실을 잣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몹시 고된 노동이다. 그러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유형의 민담이나 아마(亞麻)로 황금실을 자아야하는 <룸펠스틸츠헨(Rumpelstilzchen)><sup>10)</sup>과 같은 민담의 여주인공들이 유독 물레와 연관이 깊은 것은 실잣기나 베짜기가 단지 그녀들의 성실성이나 노동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화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설화 속 소녀들의 실잣기와 베짜기는 초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녀들의 정신과 육체를 성숙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다고 언급했다. 선사인들은 소녀들의 초경에 독이 있다고 믿어 일정기간 동안 격리시켰다고 파악되고 있으나, 엘리아데는 초경을 맞이한 소녀들의 오두막을 단순한 격리장소로 보지 않았다. 지상과 외부로부터 격리된 높고 좁은 공간에서 소녀들은 여성으로의 변화, 즉 자신들의 성숙을 인식하고 이를 몸으로 체화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따라서 초경을 맞은 소녀들의 격리는 바야흐로 태초의 여성신화가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외부와 차단된 채 소녀들은 태초의 여신들이 시간을 갖고 인간의 운명을 짚던 것처럼, 실을 잣고 베를 짜는 신성한 의례를 되풀이했으며, 이 비밀스러운 의례는 마치 태초의 여신과도 같은 직분을 갖고 있던 늙은 여자들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한다.<sup>11)</sup>

9) 민담의 여주인공들의 나이가 대략 12~15세이며 결혼을 끝으로 이야기를 맺는 민담의 특징은 민담(마법담)의 목적과 기능을 파악하는데 주요 지표(指標)로 작용한다: 이해정, 「민담에 수용된 진짜신부의 의미」, 『독일문학』 121권, 2012.3, 275~297쪽 참조.

10) KHM. 55번.

11)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 강웅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257~258쪽 참조.

여성에서 여성으로 전해졌던 이 비밀스러운 의례의 전수자였던 늙은 여자들이 바로 민담에 등장하는 노파나 마녀, 나아가 ‘홀레할머니’일 것이다. “마침내 소녀는 작은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에서 한 늙은 노파가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파에게는 아주 큰 이빨이 나 있어서 소녀는 겁이 나서 달아나려고 했다(Endlich kam es zu einem kleinen Haus, daraus guckte eine alte Frau, weil sie aber so große Zähne hatte, ward ihm angst, und es wollte fortlaufen)”<sup>12)</sup> 무서우면서도 다정한 홀레할머니의 이중적 묘사는 지도자면서도 감독자인 늙은 노파의 역할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홀레’라는 이름에서 게르만의 저승의 여신 ‘헬(Hel)’ 또는 ‘헬라(Hella)’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은 기독교의 유입과 함께 ‘지옥(Hölle)’의 이미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림형제는 KHM 24 <홀레할머니>에 “그래서 헤센 지방에서는 눈이 오면, 홀레할머니가 이불을 던지고 말한다(Darum sagt man in Hessen, wenn es schneit, die Frau Holle macht ihr Bett)”<sup>13)</sup>고 주를 달았듯이, 홀레 여신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거처하며 지상의 풍요와 생육을 다스리던 모신이었다.<sup>14)</sup>

하늘과 땅에 동시에 거처하며 풍요를 다스리던 여신은 달과 연관된 대지의 여신이다. 프랑스 신화인류학자인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은 최초의 농사꾼들은 농경의 발견과 함께 달의 신비스러운 힘을 체험했으며, 외형상 변화가 없는 태양보다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달의 변화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데메테르나 키벨레와 같은 풍요의 여신들은 지하의 여신인 동시에 식물과 대지 및 탄생과 죽음의 신으로도 불렸으며, 식물의 성장을 지배하는 대지와 그 대지의 힘을 변화시키는 달과도 동일한 상징

12) Brüder Grimm, *Kinder-und Hausmärchen*, Winkler Verlag München 1984, p.169.

13) 앞의 책, p.170.

14) Heide Göttner-Abendroth, “Matriachale Mythologie in den Zaubermärchen”, p.286.  
in: Kurt Derungs, *Die ursprünglichen Märchen der Brüder Grimm*, edition amalia, 1999,

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sup>15)</sup>

<홀레할머니>의 소녀가 우물 속에서 만난 할머니는 바로 이와 같은 대지모 성격의 여신이다. 우물 속에 빠진 소녀가 홀레할머니를 만났으며 그 세계가 지하세계라는 것과 또한 이 소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민담의 소녀들이 손가락을 찢리는 등의 출혈을 보이는 것은 그녀들의 초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레 바늘에 찢린 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을 자는 <숲속의 잠자는 미녀>의 여주인공들의 출혈에 대해, “성서에서 월경은 때로는 저주라고 언급되며 그것은 피를 흘리게 하는 여성의 -요정의- 저주이다. 두 번째로 이 저주가 효과를 발휘하는 때는 월경이 시작하는 나이이다. 마침내 출혈은 남자가 아닌 노파와의 만남을 통해 나타난다. 성서에 따르면 그 저주는 여성에서 여성으로 전해진다.”<sup>16)</sup>라는 언급으로 초경을 맞은 소녀들과 노파들의 관계에 대해 의미있는 견해를 밝혔다.

<홀레할머니>의 소녀가 손가락에서 피를 흘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경을 맞이한 소녀가 만난 노파인 홀레할머니는 소녀를 여성에 이르게 하는 대지모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우물 속 지하세계는 대지모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신화인류학자인 하이데 괴트너-아벤트로트(Heide Göttner-Abendroth)는 민담 속 여주인공의 지하여행은 여성의 통과 의례 중 가장

15) 질베르 뒤랑 저, 진형준 역,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2010, 452~454쪽 참조.

16) “In der Bibel wird die Menstruation gelegentlich als der Fluch bezeichnet, und es ist der Fluch einer Frau -der Fee-, der die Blutung verursacht. Zweitens ist das Alter, in dem der Fluch wirksam werden soll, das Alter, in dem früher meist die Regel einsetzte. Schließlich kommt es zur Blutung durch die Begegnung mit einer alten Frau, und nicht mit einem Mann; und nach der Bibel vererbt sich der Fluch von Frau zu Frau”.

이에 대해서는 Bruno Bettelheim, *Kinder brauchen Märchen*, dtv München, 1980, p.271.

오래된 형태인 지하로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녀는 홀레할머니의 경작지 관리(뽕 꺼내기), 과수 돌보기(사과 따기), 가축 길들임(소젖 짜기), 기상관리(깃털이불 털기) 등을 통해 여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고 파악했다.<sup>17)</sup> 따라서 <홀레할머니> 소녀의 황금은 단순한 재물의 의미가 아니라, 땅의 깊은 모태, 즉 왕성한 생산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녀가 온전한 여성성을 획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황금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생산하듯이, 대지라는 자궁 속에서 오랜 기간 숙성된 완전한 금속으로서, 황금의 고귀함은 자연의 궁극적인 목적인 광물계의 완성, 즉 최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민담의 황금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인 물질을 의미하며, 이때 노파들은 자연의 이상(理想)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구제자로서, 지고의 성숙, 즉 불멸성과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까지 그 자손인 광물, 동물, 인간을 완성시키는 연금술사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8)</sup> 대지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키워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창조적인 존재이며, 여성 역시 생명을 잉태하여 생산하는 창조적인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과 대지는 동가이며 여성이 품은 생명과 대지가 품은 황금 역시 동가이다. 따라서 여성과 대지와 황금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홀레할머니의 역할 역시 연금술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여성과 대지와 황금의 의미가 보다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설화는 사체화생(死體化生) 유형의 농경설화들이다. 일례로 독일의 아돌프 엘레가르트 엔젠(Adolf Ellegard Jensen)에 의해 채록된 인도네시아 세람섬의 <하이누웰레(Hainuwele)><sup>19)</sup> 설화는 여성과 대지, 황금, 달의 의미가 총체

17) Kurt Derungs, *Die ursprünglichen Märchen der Brüder Grimm*, p.287.

18)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57 쪽 참조.

19) <하이누웰레(Hainuwele)>는 독일의 역사민족학자, 아돌프 엘레가르트 엔젠(Adolf Ellegard Jensen)과 헤르만 니게마이어(Hermann Niggemeyer)가 인도네시아의 세

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구경(球莖) 기원설화라 할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이 설화에서 구경작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살해당하기 전에 그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귀중한 물건들에 대한 내용이다. 하이누웰레 소녀는 태어난지 3일 만에 이미 처녀의 몸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녀가 변을 보면 ‘징’이나 ‘중국접시’ 같은 귀한 물건들이 나왔다. 아직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던 그때, ‘징’이나 ‘사기접시’가 왜 귀중한 물건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사 각편인 <투왈레와 라비(Tuwale und Rabie)><sup>21)</sup> 등을 보면 보물로 유추되는 징이나 사기접시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투왈레와 라비>의 ‘라비’는 ‘달소녀’이다. 라비는 태양에 의해 땅속으로 끌려들어 갔다가 3일 후 달

람섬과 뉴기니 일부 지역의 설화를 채록하여 출간한 설화집 『하이누웰레(Hainuwele)』(1939)의 핵심 설화이다.

- 20) 아돌프 엘레가르트 엔제 · 헤르만 니게마이어 공저, 이혜정 역, 『하이누웰레』, 뮤진트리, 2014, 109~119쪽 참조: ‘하이누웰레(ha-가지, i-3인칭 소유격 어미, nuwele-야자나무)’는 ‘야자나무 가지’라는 뜻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살해당해서 땅에 묻힌 소녀의 이름이다. 그녀는 아메타라는 남자가 발견한 멧돼지 어금니에 끼어있던 야자열매에서 자라난 코코야자 나무의 꽃즙과 아메타의 손가락 상처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피가 엉켜서 태어난 소녀였다. 그녀는 매우 빨리 자라서 3일 뒤에는 이미 결혼할 수 있는 처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변을 보면 중국 접시나 징, 잎담배(시리), 큰칼(파랑)과 같은 값비싼 물건들이 나와서, 그녀의 아버지는 금방 부자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9일 밤 동안 계속되는 마로 Maro-춤 축제의 춤판 가운데 앉아서, 춤추는 사람들에게도 시리와 파랑, 징, 중국접시 등의 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밤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값비싼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이누웰레가 나누어 주는 보물을 다투어 받아갔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아홉 번째 밤에 하이누웰레가 다시 춤판 가운데 앉았을 때, 남자들은 천천히 9점 나선형으로 춤을 추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하이누웰레를 몰고가서 안으로 밀어 넣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마로춤이 끝났으나 하이누웰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로춤이 행해졌던 장소를 찾아가서 9개의 코코야자나무 잎맥으로 땅을 찢러보자, 춤판 가운데서 하이누웰레의 머리카락과 피가 묻어나왔다. 그는 그 자리를 파서 하이누웰레의 시신을 꺼낸 다음, 그녀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마로-춤을 추던 나선형 라인을 따라 하나씩 묻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하이누웰레의 시신조각들을 묻은 자리에서 당시에 아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식용구경들이 생겨났다.

- 21) 앞의 책, 91~95쪽 참조.

이 되어 하늘에 나타나, 사기접시와 같은 귀중품들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즉 ‘라비’ 설화는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달이 된 소녀의 이야기로서, <하이누엘레>와 동일한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름에 사라졌던 달이 3일 후 다시 하늘에 나타나듯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즉 죽었다가 3일 후 다시 환생하여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설화의 기본 토대는 땅속에서 환생하는 태음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2)</sup>

이렇듯 여성과 대지와 달은 변화와 창조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세계를 포섭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황금은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체로 활용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온몸에 황금비를 맞고 지상으로 회귀한 소녀의 이야기인 <홀레할머니>는 여성의 성숙과 생산성을 대지와 황금의 연관성 속에서 이야기한 태음적 설화라 하겠다.

## 2. 게르만 신화 『에다』

게르만 신화 『에다』는 <신들의 노래(Götterlieder)>와 <영웅들의 노래(Heldenlieder)>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신들과 영웅들의 파국을 노래한 종말신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간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위대한 신들의 세계에 이미 종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죽은 오딘(Odin)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sup>23)</sup> 세계의 어떤 신화에도 오딘만큼 노력한 주신(主神)은 없다. 특히 오딘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창으로 찢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아흐레 동안 이그드라실(Yggdrasil)에 거꾸로

22) 앞의 책, 96쪽 참조.

23) 『에다』는 오딘의 경험담과 잠언들로 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딘이 죽었다가 환생하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정황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케빈 크로슬리 홀랜드 저, 서미석 역, 『북유럽신화』, 현대지성사, 2001, 80~84쪽 참조.

메달려 마법의 문자인 룬(Run)문자에 통달했으며, 지혜의 샘물을 먹기 위해서 한쪽 눈을 샘물지기, 미미르(Mimir)에게 주기도 한다.<sup>24)</sup> 그러나 그토록 치열하게 알고 싶었던 지혜의 최종점은 ‘과연 종말의 시간은 오는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것뿐, 이상하게도 오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심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다만 종말을 향해 치달아갔던 라그나뢰크(Ragnarök)의 그 날을 극적으로 전할 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에다』의 성격을 두고 예정된 운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게르만족의 숙명 내지는 영웅적 비장미 등으로 이해하는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에다』는 태고적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의 변이를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서사(敍事)이다. 인도-유럽인들의 사회 구조를 신(사제), 전사, 농경민(목축인)의 세 계층으로 파악한 조르주 뒤메질(Georges Dumézil)은 게르만의 신화 『에다』에도 오딘과 토르(Thor) 그리고 프레이르(Freyr)로 대응되는 세 계층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권력이 분배되어 있어 영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sup>25)</sup> 그러나 뒤메질은 또한 “우리가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게르만족들도 이 체계(3계층)와 관련된 정확한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대응 체계의 특징이라면 점차적으로 전쟁과의 관련성을 띄어 간다는 점으로, 카이사르도 분명하게 지적했듯이,<sup>26)</sup> 전쟁은 고대 게르만족의 사회를 특징짓는 요소였다.”<sup>27)</sup>고 언

24) 지혜의 샘물을 먹기 위해 오딘은 한쪽 눈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 한쪽 눈을 지혜의 샘에 넣음으로써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심안(心眼)을 얻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25) Georges Dumézil, *L'Heritage Indo-Européen a Rome*, Gallimard, 1949, p.68.

26) 역사에서 게르만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가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총독으로 있을 때 기록한 전쟁보고서 『갈리아전쟁기(Commentarii de Belo Gallico)』(BC.58~50, 총8권)로 알려져 있다.

27) “Les Germains, à en juger par les anciens Scandinaves sur lesquels nous sommes assez bien renseignés, en avaient la réplique exacte, simplement marquée de ce glissement général vers les choses de la guerre qui caractérisait, comme César le

급했다.

뒤메질의 언급처럼 게르만 신화는 여타 신화들에 비해 전쟁의 비중이 크며, 오딘의 성격도 전쟁의 신으로서의 특징이 가장 선명하다. 『에다』는 한마디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이 난다. 그런데 처음 전쟁도 마지막 전쟁도 오딘의 상대는 거인(巨人)이었다. 게르만 신화의 최초의 거인은 무스펠하임(Muspelheim)의 뜨거운 열기와 니플하임(Niflheim)의 차가운 냉기가 엉켜서 태어난 서리거인, 이미르(Ymir)였는데, 오딘 삼형제는 이 거인을 죽여서 세계를 만든다. 이때 이미르가 흘린 피의 홍수에 휩쓸려 베르젤미르(Bergelmir) 거인부부를 제외하고 모든 서리거인들이 죽는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쟁은 그 세상에서 벌어진 최초의 공식적인 전투인 반(Wanen) 신족과의 싸움이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아스(Asen) 신족과 반 신족은 서로 밀고 밀리는 혼전 속에서 승패가 나지 않자 평화협정을 맺고 그 증표로 서로의 지도자를 바꾸기로 협약한다.<sup>28)</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협정은 아스 신족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나아가 오딘이 미미르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오딘이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으며 공교롭게도 미미르 또한 거인이었다. 반 신족도 실은 거인족과 가까운 부류였다. 반 신족의 최고 수장이었던 뇨르드도 북구의 여자거인 스카디(Skadi)와 재혼했으며,<sup>29)</sup> 프레이르도 거인여자 게르다

notait déjà avec lucidité, les anciennes sociétés germaniques”.

이에 대해서는 Georges Dumézil, *L'Heritage Indo-Européen a Rome*, p.68.

- 28) 아스 신족과 반 신족의 협정으로, 반 신족의 지도자인 뇨르드(Niörd)와 그의 아들과 딸인 프레이르와 프레이야(Freyja)가 아스가르드로 오게 되었으며, 아스 신족 측에서는 풍채가 좋은 호니르(Honir)와 현자, 미미르(Mimir)가 바나하임(Wanaheim)으로 왔다. 그러나 호니르가 걸보기와는 다르게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반 신족은 속은 것에 화가 나서 미미르의 머리를 베어 아스가르드로 보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딘은 별다른 대응없이 미미르의 머리에 찌지 않게 하는 허브를 바르고 주문을 외워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한 다음, 지혜의 샘물을 지키며 자신에게 수많은 지혜를 전달케 한다.

- 29) 뇨르드는 원래 친여동생과 결혼하여 프레이르와 프레이야를 낳았다고 한다. 이

(Gerda)와 결혼한다. 이렇듯 오딘과 거인족의 관계는 적이면서도 공생 관계였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세계의 멸망을 가져오는 화근이 바로 거인족 출신 로키(Loki)라는 점이다. 거인족 출신인 로키가 왜 아스 신들에게 접근했는지, 그토록 지혜롭고 신중한 오딘이 왜 갈등의 씨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로키의 어두운 운명은 오롯이 그의 것이다. 여러 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딘이 피의 맹약으로 로키를 아들(또는 아우)로 받아들였으나, 결론적으로 로키는 신들의 세계에 완전히 합류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로키가 어둠이라는 것은 그가 가장 밝은 신인 발두르(Baldr)를 죽게 만든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키가 아스가르드로 온 이유와 함께, 『에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들을 펼쳐 놓은 채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하지 않는 몇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로키가 발두르를 죽게 만든 일이다. 로키가 특별히 발두르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도 없었으며, 더욱이 로키가 신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발두르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로키의 저주받은 운명과 세계의 종말에 관한 흥미로운 복선을 마련해 놓았다. 그것은 로키가 난쟁이 안드바리에게서 황금을 빼앗아 온 사건이다. 로키는 오딘과 함께 산책을 갔다가 수달로 변신한 거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책임을 물어 거인은 수달의 온몸을 황금으로 덮어달라고 요구한다. 로키는 난쟁이, 안드바리를 찾아가서 황금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나오다가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황금반지까지 빼앗는다. 이에 극도로 화가 난 안드바리는 그 황금반지를 갖게 되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될 거라는 저주를 내린다.

안드바리의 저주는 비껴가지 않았다. 안드바리의 황금을 빼앗은 로키

---

때문에 노르드가 아스가르드에 왔을 때 아스 신족들은 노르드를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프레이르와 공동으로 제사장에게 임명하고 프레이야를 여사제로 정했다.

는 결국 자신과 세계를 종말로 이끄는 도화선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원래 그 세계에 최초로 황금을 가져다 준 존재는 ‘굴바이크(Gullveig)’였다. 굴바이크는 반 신족의 마법의 여신으로 최초로 신들과 인간들에게 황금의 존재를 알려준 여신이다. 굴바이크에 의해 황금을 알게된 인간들은 탐욕에 눈뜨게 되었으며 최초의 살인도 일어났다. 굴바이크는 아스 신들에게도 황금을 선물하며 마법으로 신들의 감각을 현혹시키려하자 오딘은 굴바이크를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끝없이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던 굴바이크는 더 많은 황금을 가지고 인간들의 땅, 미드가르드(Midgard)로 가서 계속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화가 난 아스 신들은 굴바이크를 오딘의 앞으로 끌고가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세 번이나 화형시켰으나 굴바이크는 마법으로 계속 되살아났다. 이 굴바이크 사건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아스 신족과 반 신족의 싸움의 원인이다. 반 신족은 아스 신족이 굴바이크에게 가했던 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딘이 반 신족의 땅, 바나하임(Wanaheim)을 선제 공격하였다.

아스 신족의 굴바이크 박해에 대해, 질베르 뒤랑은 게르만 전사들은 황금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sup>30)</sup> 또한 그는 아스 신족을 전사계층으로, 반 신족을 농경제층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농경제층인 반 신족과 전사계층인 아스 신족이 외형적으로는 서로 화합한 것처럼 보이나, 서로의 본성까지 완전히 융합된 것은 아니다. 신들이 모두 모인 잔치에서 프레이야가 나홀 밤이나 난쟁이들에게 몸을 허락하고 황금 목걸이를 얻었다고 로키에게 희롱을 당한 국면이나 프레이야가 눈물을 흘리면 황금 눈물이 굴러떨어지는 특징 등은 반 신족과 황금과의 깊은 관련성을 상기시킨다. 즉 대지에 속하는 보물인 황금에 대한 애호는 농경시대의 주역이었던 반 신족의 속성인 반면에, 게르만 전사 계층인 아스 신족들에게는 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황금이 혐오의 대상이었다. 따

30) 질베르 뒤랑 저, 『상상계~』, 404쪽 참조.

라서 농경 신들과 더불어 대지의 가장 고귀한 금속인 황금은 굴바이크와 함께 혐오스러운 악마의 물질로 폄하되어 게르만 신화에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르만의 신들이 그토록 황금의 여신 굴바이크를 경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땅속의 물질인 황금에 대한 혐오에서 기인할 것이며, 거인족 출신인 로키의 부적응과 분노 역시 땅에서 태어난 종족의 본능적 이질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황금을 혐오했던 게르만의 신들도 자신들을 보증하는 마법의 신기(神器)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무기나 도구들이 모두 난쟁이들이 만든 황금보물이라는 점이다. 오딘에게는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 맞는 창, 궁니르(Gungnir)와 아흐레마다 여덟 개가 복제되는 황금팔지, 드라웁니르(Draupnir)가 있었으며, 토르에게는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쇠망치, 몰니르(Mjolnir)가 있었다. 또한 프레이르에게는 어디든 달릴 수 있는 황금돼지, 굴린부르스티(Gullinbursti)와 저절로 칼집에서 나와서 무엇이든 베는 검(劍)<sup>31)</sup>이 있었으며, 프레이야에게는 황금목걸이, 브리징가멘(Brisingamen)이 있었다.<sup>32)</sup> 프레이야는 반 신족 중에서도 황금 및 마법과 가장 연관이 깊은 여신으로, 남편<sup>33)</sup>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온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그녀의 눈물은 황금이 되어 굴러떨어졌다고 한다.<sup>34)</sup>

이렇듯 게르만의 최고 신들은 자신들을 보증하는 황금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보물들은 재물이 아니라 각기 특징적인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한 도구로서 그것을 소유한 자를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31) 프레이르의 검의 이름은 『에다』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32) 이 마법의 보물들은 모두 난쟁이들에게서 빼앗았거나 선물로 받은 것들로, 결국 땅속 존재인 난쟁이들에게 속하는 보물들이다. 과학적으로 황금은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의 무기로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게르만 신화의 황금 무기 및 보물들의 가치는 소재로서의 황금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법적 힘을 지닌 신기(神器)로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33) 프레이야의 남편의 존재는 분명하지 않다. 오드(Od)라고도 하고 오딘(Odin)이라는 설도 한다.

34) 프레이야는 반 신족 중에서도 마법적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황금과의 연관성도 가장 깊기 때문에 프레이야를 굴바이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게르만 신화의 황금보물은 소유자의 능력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마법적 도구인 동시에 이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에게만 허락되는 정신적인 물질로, 이를 소유한 존재와 동일시되는 상징체이기도 하다.<sup>35)</sup>

이렇듯 게르만의 신들에게 황금의 신기는 마법(魔法)적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황금을 혐오했던 아스 신들이 황금의 신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아스 신족과 반 신족 사이의 싸움으로 돌아가보자. 이 싸움에서 두 신족은 서로 화해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협정에서 오딘은 많은 것을 얻었다. 전사 계층인 아스 신족과 이전 시대의 계층에 해당하는 농경 계층인 반 신족이 아무 갈등없이 평화롭게만 지내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질베르 뒤랑은 이 점에 있어서, “밤과 낮, 두 체제의 대립은 게르만 신화에서 반 신족과 아스 신족의 싸움에서도 발견된다. .... 그러나 모든 균형잡힌 사회는 애초에 전사들의 사회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일정부분 밤(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게르만족은 노르드 숭배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지의 신과 평화의 신이다. 그의 축제일이면 전사들은 무기는 물론 쇠로 된 어느 것도 만지면 안되었다. 노르드의 날은 평화와 휴식의 날인 것이다.”<sup>36)</sup>라고 설명했다.

뒤메질도 “오딘과 토르 그리고 프레이르의 상이 있는 감라 읍살라 사원을 보면, 11세기에 이르기까지도 프레이르의 상은 다른 두 신(오딘과 토르)과 구분되는데, 거대한 남근이 그 차이점이다. 프레이르의 통치와 관련된 전설들, 즉 프레이르의 변형들인 프로디(Frôdhi) 또는 프로타

35) 몰리르를 잃어버렸을 때 토르는 몰리르를 훔쳐간 거인을 직접 상대하지 못하고 프레이야를 신부로 달라는 거인의 요구에 자신이 대신 신부 분장을 하고 가서 몰리르를 다시 뺏어오는 굴욕을 겪는다. 프레이르도 스스로 칼집에서 나와서 무엇이든지 뺏 수 있는 마법의 검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인여인인 게르다와의 구혼을 성사시켜준 댓가로 자신의 시종에게 주었기 때문에, 불의 신, 수르투르(Surtur)의 불칼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36) 질베르 뒤랑 저, 『상상계~』, 405쪽.

(Frotha) 왕과 관련된 전설들은 모두가 전례없는 변영으로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황금시대의 이야기들이다.”<sup>37)</sup>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농경을 바탕으로 풍요와 평화를 누리던 반 신족과의 화합으로 오딘은 자신들의 세계에 농경 계층을 받아들임으로써 프레이르를 중심으로 하는 제 3의 계급을 형성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 신족과의 결합이 오딘에게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반 신족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마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마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아스가르드에 온 직후부터 프레이야는 아스 신들에게 직접 마법의 능력을 전수해 주었으며, 오딘의 강요로 마법을 사용해서 인간들 사이에 증오를 불러일으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전사들을 살려내 다시 싸우게 만들기도 했다.<sup>38)</sup> 이렇게 반 신족으로부터 수용한 마법의 능력은 아스 신족, 특히 오딘에게는 주신(主神)로서의 권능을 펼치는 데 있어 십분 도움이 되는 능력이었을 것이다. 오딘이 지혜와 마법을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초창기 오딘의 마법은 아직 반 신족의 마법에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뒤메질은 오딘은 스웨덴의 왕, 에릭에게 등나무 가지를 주며 “오딘이 그대들 모두를 소유한다!(Odhinn vous possède tous!)”라고 외치면서 적들에게 던지라고 명한 일화를 예로 들며, 오딘이 에릭왕에게 가르쳐준 원형적인 마법의 제스처에 대해 언급하며, “..... 그럼에도 오딘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반 신족이 아스 신족의 성벽을 파괴했다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Il ne réussit pourtant pas, puisque la même strophe décrit ensuite une rupture de l’enceinte des Ases par les Vanes)”<sup>39)</sup>라고 지적했듯이, 초창기 오딘의 마법은 아직 반 신족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 신족을 쉽사리 이기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결국 오딘은 전략적인 협정을 통해 반 신족의 부와 마법을 수용함으로써

37) Georges Dumézil, *L’Heritage Indo-Européen a Rome*, p.69.

38) 캐빈 크로슬리 홀런드 저, 『북유럽 신화』, 174쪽 참조.

39) Georges Dumézil, *L’Heritage Indo-Européen a Rome*, p.141.

“오딘은 주신이다; 오딘의 다양한 권능 중에는 전투나 병사들에 대한 인상적인 권능과 부와 번영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항상 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Odhinn est le dieu souverain; son action multiforme, y compris son action très marquée sur les combats et les combattants et aussi son action sur la richesse et la prospérité,, est toujours à base de magie)<sup>40)</sup>는 뒤메질의 언급처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통치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파악된다.

즉, 게르만 신화 사회의 초창기에 전사 계층인 아스 신족들은 이전 세대에 속하는 농경 계층인 반 신족의 세계관을 경시하고 혐오했을 것이며,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족들이 티탄족들을 악마화시켰듯이, 대지와 밤의 세계에 속하는 반 신족의 속성을 폄훼하고 경원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신과 인간을 현혹시키며 태워도 죽지 않는 굴바이크의 존재나 그녀의 황금에 대한 혐오는 대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아스 신들의 이질감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스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 등, 기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성립을 이야기한 여타 신화들의 전쟁의 끝은 기존 세력의 멸망이다. 그러나 게르만 신화는 전사 계층인 아스 신족이 기존 세력인 반 신족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아스 신족은 처음에 가졌던 황금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황금의 마법적 능력을 자기화함으로써 황금의 마법으로 대지의 자식들인 거인들의 공세를 방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게르만 신화 『에다』에서의 황금은 애호와 혐오의 상반된 국면을 통해, 농경 계층인 반 신족과 전사 계층인 아스 신족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두 신족의 화합을 통해 마법적 기능이 확대된 양가적인 의미의 정신적 물질이라 하겠다.

40) 앞의 책, p.68.

### 3. 중세 독일 전설 『니벨룽의 노래』

『니벨룽의 노래』는 인간 영웅들의 죽음과 파멸을 노래한 애가(哀歌)<sup>41)</sup>로서, 앞서 언급했던 <홀레할머니>나 『에다』에 비해 황금반지와 황금에 대한 의미와 기능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에다』에서의 황금반지는 모든 황금을 상징하는 마법의 반지였다. 그러나 『니벨룽의 노래』의 황금반지는 남녀의 결혼과 신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축소되어, 재물로서 황금이 갖고 있는 욕망의 상징과 거리를 갖게 되었다.

용을 죽이고 엄청난 보물과 마법의 망토 및 황금 갑옷 등을 획득한 지크프리트(Siegfried)는 당대의 소문난 미인, 크림힐트(Kriemhild)를 보기 위해 보름스로 간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으나 크림힐트의 오빠인 군터(Gunther) 왕은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자기 대신 이슬란트(Islant)<sup>42)</sup>의 여왕인 브뤼힐트(Brünhild)를 제압해 달라고 요청한다. 브뤼힐트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녀와의 시합에서 이겨야만 했는데, 브뤼힐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영웅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크프리트는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마법의 망토를 입고 군터왕을 도와 브뤼힐트를 제압한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도 군터왕이 브뤼힐트와 첫날밤도 치르지 못하자, 지크프리트가 다시 망토를 입고가서 브뤼힐트의 허리띠를 풀어 군터왕이 그녀와 동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때 지크프리트는 브뤼힐트의 황금반지와 허리띠를 몰래 가지고 와서 나중에 크림힐트에게 준다.

이 황금반지와 허리띠는 훗날 브뤼힐트와 크림힐트 사이의 불화를 정

41) <Das Nibelungenlied>의 lied는 일반적으로 ‘노래’라고 해석되지만, 중세독일어 ‘lid [li:t]’가 근대독일어 leid [lait]로 바뀐 점을 고려, ‘고통’ 또는 ‘비극’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명, 「지크프리트 전설에 속에 숨은 역사적 실체」, 『독일문학』 121집, 2013.3, 57쪽 참조.

42) 오늘날의 아이슬란드는 확실히 아니라고 한다: 허창운 편역, 『니벨룽겐의 노래』, 207쪽 참조.

점으로 이끄는 불씨가 된다. 지크프리트의 기만으로 군티왕과 결혼하게 된 브뤼힐트는 어쩐지 봉신(封臣)인 지크프리트가 자신의 남편과 대등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먼저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브뤼힐트와 크림힐트 사이에 언쟁이 붙는다. 브뤼힐트는 왕의 아내이자 이슬란트의 여왕인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크림힐트는 지크프리트가 가져다 준 브뤼힐트의 황금반지와 허리띠를 내보이며 원래 브뤼힐트를 제압했던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니, 브뤼힐트는 자신의 남편의 첩이라고 모욕을 주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반지와 허리띠를 본 브뤼힐트는 분노에 휩싸여 남편인 군티왕에게 지크프리트를 죽이지 않으면 이슬란트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결과 지크프리트는 군티왕의 충신인 하겐에 의해 등뒤의 약점에 창을 맞고 죽는다.

그런데 브뤼힐트의 황금반지와 그녀의 분노에는 이면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것은 지크프리트가 크림힐트와 결혼하기 전에 브뤼힐트와 먼저 결혼을 하고 반지를 주었다는 정황이 게르만 설화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에다』의 2부인 <영웅들의 노래>에서는 시구르드<sup>43)</sup>가 오딘의 저주로 갑옷을 입고 완전무장한 채 불타는 성벽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브뤼힐트를 깨워 사랑의 맹세를 하고 결혼한다.<sup>44)</sup> 『니벨룽의 노래』에서도 지크프리트가 브뤼힐트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군티왕의 요청으로 브뤼힐트의 성, 이젠슈타인(Isenstein)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지크프리트가 자청하여 선장을 맡으며, “나는 여기서부터 강을 타고 당신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요. 나는 올바른 수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요.”<sup>45)</sup>라고 말한다.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천하의 영웅이 남의 아내가 될 여자의 반

43) <영웅들의 노래>의 ‘시구르드’는 『니벨룽의 노래』의 ‘지크프리트’에 해당한다.

44) 카를 짐록 저, 『에다』, 310~320쪽 참조.

45) 허창운 편역, 『니벨룽겐의 노래』, 228쪽.

지를 몰래 훔쳐서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다는 맥락은 이해하기 어렵다. 허창운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옛 신부구하기 문학’의 분위기로 인도된다.”<sup>46)</sup>고 언급하였다. ‘옛 신부구하기 문학’은 주요 설화 모티프들 중 하나로, 금기를 어긴 아내를 버리고 먼 곳으로 떠난 남편이 모종의 이유로 옛 부인을 잊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 옛 부인이 나타나 남편의 기억을 되살려 재결합하는 플롯이다. 『니벨룽의 노래』에서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지만, 『에다』의 2부인 <영웅들의 노래> 편에서는 분명히 시구르드와 브뤼힐트는 결혼을 하고 사랑의 맹세를 했으며, 다시 만났을 때 브뤼힐트는 시구르드를 알아보고 분노한다.<sup>47)</sup> 따라서 지크프리트가 브뤼힐트의 황금반지를 구드룬(크림힐트)<sup>48)</sup>에게 준 배경에는, 지크프리트가 브뤼힐트를 잊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내인 크림힐트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그너(R. Wagner)는 그의 <니벨룽의 반지 Der Ring des Nibelungen>에서 이 부분을, 군터왕 측(군터 왕의 어머니)에서 지크프리트에게 마법의 술을 먹여 브뤼힐트를 잊게 만든 것으로 행간을 채웠다.<sup>49)</sup> 따라서 『니벨룽의 노래』의 황금반지는 『에다』에서와는 다르게 그 의미가 축소되어, 현재와 같이 남녀 간의 사랑과 신뢰의 나타내는 원형의 예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다』의 <영웅들의 노래>에는 황금반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브뤼힐트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시그문트<sup>50)</sup>가 물려준 황금팔지’였다고 한탄하는 문장으로 보아, 이 황금팔지가 시구르드가 구드룬에게 준 결혼예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1)</sup>

현존하는 『니벨룽의 노래』의 사본은 13세기 중반에 독일 동남부의 ‘파

46) 앞의 책, 각주 8), 217쪽,

47) 카를 짐록 저, 『에다』, 322쪽 참조.

48) <영웅들의 노래>의 ‘구드룬’은 『니벨룽의 노래』의 ‘크림힐트’에 해당한다.

49) 안인희, 『게르만신화·바그너·히틀러』, 민음사, 2003, 399쪽 참조.

50) 시그문트는 시구르드의 아버지이다.

51) 『에다』의 <영웅들의 노래>에서는 브뤼힐트가 군나르를 사주하여 시구르드를 살해한 다음, 자신도 칼로 가슴을 찌르고 시구르드와 함께 화장대에 오른다.

사우(Passau)’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듯이,<sup>52)</sup> 다분히 중세적 가치관과 관습 및 역사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사문학의 한 전형으로서, 인간 존재의 의미나 신의(信義) 및 진실의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특히 『에다』의 <영웅들의 노래>와 함께 『니벨룽의 노래』에는 영웅들의 파멸의 시원(始原)을 브뤼헨트에 대한 지크프리트와 군터왕의 거짓과 파약의 문제를 비중있게 말하고 있으며, 이때 황금반지는 재물을 대표하는 의미가 아닌, 남녀 사이의 사랑과 신의를 나타내는 원형의 상징으로 수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53)</sup> 게르만의 전설, 『니벨룽의 노래』에서의 황금도 영웅들을 파멸로 이끄는 근원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핵심은 신의를 저버린 일로, 가장 핵심적인 최대의 사건은 지크프리트가 군터왕 대신 브뤼헨트를 제압하고 그녀의 허리띠를 푼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군터왕은 지크프리트에게 심리적인 열등감과 질투심을 갖게 되었으며, 후에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된 브뤼헨트는 수치심에 치를 떨며 남편에게 지크프리트를 죽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을 잃은 크림힐트도 훈족의 왕, 에첼(Etzel)과 결혼한 후, 지크프리트를 죽게한 오빠들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고, 자신도 늙은 영웅 힐데브란트(Hildebrand)의 손에 죽는다. 신의를 어긴 인물들의 파멸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신화학자 오카다 가즈코는 영웅들의 종말의 이유를 ‘8가지 파약’으로 이해했는데, 로키가 난쟁이 안드바리를 속여 그의 황금을 빼앗은 사건으로부터,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고 파약을 거듭하게 된 파멸의 연속성을 지적했다.<sup>54)</sup>

52) 김재명, 「지크프리트 전설에 숨은 역사적 실체」, 57쪽 참조.

53) 반지의 기원은 기원 전 4000여년 전부터 사용된 인장(도장)과 결합된 형태의 ‘인장반지’로 알려져 있다. 반지가 본격적으로 약혼이나 결혼에 사용된 것은 기독교 시대였으며, 초기 고딕 시대인 13세기 경에 이르러 기사문화와 궁정문화가 결합되면서 ‘사랑을 맹세하는 반지’가 유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카시 하마모토 저, 김지은 역,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55~62쪽 참조.

54) 요시다 아츠히코 저, 김수진 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신화 101』, 아세아미디어, 2001, 180~186 쪽 참조.

이렇게 『니벨룽의 노래』 속의 황금반지와 황금은 개념과 용도가 분리되어, 황금반지는 남녀의 결혼 및 사랑을 상징하는 의미로 약화된 반면에, 황금은 본격적인 재물의 의미인 부(富)를 의미하는 동시에 영웅의 입지를 위한 통과의례적인 보물로 전환되었다. 용을 죽이고 막대한 보물을 소유하게 된 지크프리트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 세상으로 나온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황금은 그 자체로 광물로서의 용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이 최상의 보물로 인지된 것은 황금이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깊은 땅 속에서 성숙의 과정을 거친 완전한 금속이라는 고찰에 기인하며 나아가 이 연금술적인 절대 금속의 소유는 절대권력의 소유를 상징했다. 『니벨룽의 노래』의 황금은 바로 이런 연금술적인 관념으로부터 배태된 절대권력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영웅에게 귀속된 황금은 그를 보증하는 재물이다. 따라서 그가 사라지면, 그의 보물도 사라진다. 지크프리트가 죽은 후, 그의 보물은 군터왕의 충신인 하겐에 의해 라인강 어딘가에 수장되어 사라진다. 지크프리트를 살해한 하겐은 처음에는 크림힐트를 달래서 지크프리트의 보물을 보름스로 옮겨오게 한다. 그러나 크림힐트가 지크프리트의 보물을 가난한 이들이나 신하뿐 아니라, 수 많은 낯선 용사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그 보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라인강 깊은 곳에 수장시켜 버린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에서 라인강의 요정들이 황금을 지키고 있는 정황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황금, 즉 권력은 그것을 가질 만한 인물의 것이라는 『니벨룽의 노래』의 이념을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설 속의 황금은 영웅의 통과의례적인 여건인 동시에 권력의 획득과도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 지크프리트 역시 영웅으로 세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를 보증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으니, 용을 죽이고 얻은 보물은 그를 천하의 용자(勇者)로 가시화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게르만 전설 속의 황금은 민담과 신화에서와는 다르게 영웅을

보증하는 재물로 변화 되었으나, 전설의 영웅은 그 황금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 영웅은 비운의 죽음을 당해 전설이 되고 그의 황금도 사라진다. 결국 전설 속의 황금은 전설에 걸맞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티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르만의 영웅들은 도미노식으로 속절없이 죽어갔지만, 치열하고 비장하게 자신의 운명에 맞섰다. 그리하여 그들의 애가(哀歌)는 시공간을 넘는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55)</sup>

### Ⅲ. 맺음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황금은 금속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로 폭넓게 간주되었다. 그것은 황금이 가지고 있는 연금술적인 의미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세계관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언제부터인지 황금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홀레할머니>에서와 같이 민담의 황금은 단순한 재물이나 권력, 등 욕망의 의미가 아니다. <라폰첼> 등과 같은 금발의 의미와 함께 여주인공의 운명을 뒤덮은 황금은 그녀가 이제 여성성을 획득했다는 가시적인 증표이다.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인 질베르 뒤랑은 황금은 땅의 보물이며 태음적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보았으며, 독일의 민족역사학자 프로베니우스(Leo Viktor Frobenius)는 태음신화를 태양신화보다 앞 선 형태로 보았다.<sup>56)</sup> 따라서 최상의 물질이었던 황금이 저주와 몰락의 상징 물질로 변화한 것은 세계관의 변화와 충돌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대지모의 태내에서 성숙한 최고의 물질로 애호받던 황금은 『에다』의 전사계 층인 아스 신족에게는 이질적이며 경원시되는 이전 세대의 물질이었다.

55) <니벨룽의 노래>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명, 「지크프리트 전설에 숨은 역사적 실제」 참조.

56) Leo Viktor Frobenius, *Die Weltanschauung der Naturvölker*. Weimar, 1898, p.395.

그러나 농경계층인 반 신족과의 협정을 통해 황금과 마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딘을 비롯한 아스가르드의 주요신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마법의 황금신기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게르만 신화 『에다』에서의 황금은 마법적 성격의 정신적인 물질로서, 변화하는 세계관에 대응하면서 점이적인 성격을 띠고 양가적인 의미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금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대한 경계는 영웅 전설에 해당하는 『니벨룽의 노래』에 보다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전설의 황금은 본격적으로 재물로서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운명적인 한계를 상징하는 코드로 활용되어 있다. 전설의 영웅은 비운의 죽음을 당하고, 그의 황금 또한 사라진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전설의 황금반지는 재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의의 증표로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니벨룽의 노래』의 황금 및 황금반지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기능과 의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게르만 민담과 신화 및 전설에서의 황금은 동일한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의미와 양상이 다르게 활용되어 있다. 물론 모든 게르만 설화들에 태음 세계관와 태양 세계관의 차이와 변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황금에 대한 의미 또한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게르만 설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홀레할머니>와 『에다』와 『니벨룽의 노래』에는 황금에 대한 의미 부여가 두드러지며, 이와 아울러 황금과 관련된 서사에 일정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게르만 설화의 포괄적인 특징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나아가 민담과 신화와 전설의 발생 및 정의 연구에 진일보할 수 있는 디딤돌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자료>

Brüder Grimm, *Kinder und Hausmärchen*, Winkler Verlag, 1984.

카를 짐록 저, 임한순·최윤영·김길웅 역, 『에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허창운 편역, 『니벨룽겐의 노래』, 상,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연구논저>

김재명, 「지크프리트 전설 속에 숨은 역사적 실체」, 독일문학 121집, 2012/3.

막스 루티 저, 김흥기 역, 유럽의 민담, 보림출판사, 2005.

대림태량 저, 권태효 역, 『신화학 입문』, 새문사, 2007.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2003.

\_\_\_\_\_, 『이미지와 상징』, 까치, 2010.

\_\_\_\_\_, 강웅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_\_\_\_\_, 심재중 역,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2009.

요시다 아츠히코 저, 김수진 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신화 101』, 아세아미디어, 2002.

아돌프 엘레가르트 옌젠 · 헤르만 니게마이어 저, 이혜정 역, 『하이누웰레』, 뮤진트리, 2015.

안인희, 『게르만신화 · 바그너 · 히틀러』, 민음사, 2003.

이혜정, 『그림형제 독일민담』, 뮤진트리, 2010.

\_\_\_\_\_, 「민담에 수용된 진짜신부의 의미」, 『독일문학』 121권, 독어독문학회, 2012.3.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계레신문사, 1994.

질베르 뒤랑 저, 진형준 역,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2010.

케빈 크로슬러-홀란드 저, 서미석 역, 『북유럽신화』, 현대지성사, 2001.

- Bettelheim, Bruno, *Kinder brauchen Märchen*. München 2003.
- Bolte, Johannes und Polivka, Georg, *Anmerkungen zu der Kinder-U.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5 Bde., Neu Bearbeitet. Hildesheim 1963.
- Derungs, Kurt, *Die ursprünglichen Märchen der Brüder Grimm*. Bern 1999.
- Dumézil, Georges, *L'Heritage Indo-Européen a Rome*, Gallimard, 1949.
- \_\_\_\_\_, *Aspekte der Kriegerfunktion bei den Indogermanen*,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64.
- Frobenius, Leo Viktor, *Die Weltanschauung der Naturvölker*. Weimar 1898.
- Häny, Arthur, *Die Edda*, Zürich 1987.
- Jensen, Adolf Ellegard und Niggemeyer, Hermann, *Hainuwele*. Frankfurt am Main 1939.
- Lüthi, Max, *Das europäische Volksmärchen*, Franke Verlag München, 1976.

## The Double Meaning of Gold in German Tales

Lee, Hye Jeong\*

Gold is a piece of metal representing treasure throughout the ages, but is also understood as a material representing human greed as the word ‘gold almighty’ suggests. Gold mainly performs a function of leading human beings to ruin in myths and legends. However, gold in folk tales entirely does different functions. The meaning of gold in folk tales is very positive, and characteristic. It is associated with a heroine in particular, and gold in folk tales appears as a symbol which shows the maturity of a heroine who grows into a main and genuine character.

It is because the view of the world in myths and legends are different from that of folk tales. Earth can be put into the same category as women and night. Gold, too, functions as a symbol representing the productivity of women and earth. In *Frau Holle*, for example, a girl goes deep into the well to take out a bloodstained reel and, in reward for her efforts to help a grandmother, comes back soaked by golden rain. It means that she has matured like gold under the ground. When a girl bleeds in folk tales, it means that she experiences menstruation or has reached a mature, marriageable age. It also means that she came to have production capacity. Therefore, gold in folk tales is used as a motif meaning maturity and the truth of a girl.

In a myth in particular and a legend in general, gold is considered to have developed into an icon of ruin that a human being should not possess.

---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 German myth *Edda*, Andvari casts a spell, saying, “All the people owning gold will be ruined” and the whole world, including that of gods, is wrapped in flames.

Like the case of *Heldenlieder*, the latter part of *Edda*, the extraordinary heroes in *Das Niebelungenlied*, die after being embroiled in fights over gold amid strifes and betrayal. Nevertheless, gold in *Edda* is not a decisive factor that brings the world of gods to the end. Although gold in German myths was a detestable matter that cheats people and brings about disaster, gold in *Edda* is utilized as a spiritual existence. Because many gods including Odin have the golden magic tools (weapons) that could help redouble their strength and capability.

It is a legendary situation that gold was recognized as treasure which make human beings covetous of property. Gold also functions as the possession of a legendary hero. In *Siegfried*, gold symbolizes the absolute treasure which a hero must have with a sense of heroism and absolute power. However, the legendary hero can never own the treasure.

Although gold is categorized as metal, it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German folk tales, myths, and legends in terms of meaning and aspects. Whereas folk tales focused on the productivity of earth and the moon, myths and legends were mostly based on the world view of the sun and therefore disparaged the elements worshiped in folk tales and transformed them into the image of devils. Therefore, go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fs that could explain the changes of the solar and the lunar views of the world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lk tales.

Key words: *Frau Holle*, *Edda*, *Das Nibelungenlied*, folk tale, myth,  
legend, gold, earth, magical power, femininity, the  
lunar view of the world, the solar view of the world

필자 E-Mail: [stelldichein@hanmail.net](mailto:stelldichein@hanmail.net)

투고일 2016년 10월 04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31일